

‘리빙랩’ 통한 도시문제 해결 모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 도시공간정보팀
세종시 미래전략담당관
LH 스마트도시개발처
2018.10.30.

대구시 시민소통과
2018.10.22.

행복청,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시범사업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로, ‘생활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행복청은 지난 8월 행복도시 1-4 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민과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도시문제와 해결 방안 도출, 기능 개선·보완, 도출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현장실증사업의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행복청은 2019년까지 추진될 현장실증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세종시의 다른 생활권,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인 5-1 생활권 등에도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협력체계 구성안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8), “행복도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8월 7일자 보도자료.

대구시, 국내외 리빙랩 활용 현황과 과제 모색하는 포럼 개최

대구시는 지난 10월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국내외 리빙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8 국제 사회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시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떠오른 리빙랩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외 다양한 리빙랩 활용 사례에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였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하는 혁신기술 리빙랩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포럼을 통해 총 네 가지 국내외 리빙랩 활용 사례가 공유되었는데 ▲리빙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을 구축한 대만의 Suan-Lien 노인돌봄센터(雙連安養中心),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실증을 위해 IoT를 융합한 성남 시니어리빙랩,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전환운동을 시작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인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사례인 북성로 사회혁신클러스터가 소개되었다.